

로컬리더십

군산시, 하반기 조직개편 실시

복지허브화 우수사례 공유 타 시군 모현동 주민센터 방문

익산시 모현동 주민센터가 복지허브화의 중심으로 변모하면서 타 시군에서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모현동 주민센터에 따르면 11월 15일 전라남도 담양군청 주민복지실 복지허브화사업 담당자 등 4명이 모현동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운영실태와 우수사례, 모현동 '희망동행'협의체 활동사항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모현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담양군청 담당자는 "복지허브화 사업을 시정의 목표로 모범되게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의 우수사례를 접하고 담양군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모현동 주민센터의 다양하고 폭 넓은 사례들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성도 모현동장은 "복지허브화를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민센터를 찾아주신 담양군청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행복이 곧 지역의 행복이라는 마음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도시재생과·박물관관리과 신설 7개 '계' 증가 철새생태관리과 폐지·축소 이관 2개 과 신설

군산시가 2016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경제 침체 장기화에 따른 조선업 등 지역경제 불황과 저출산 고령화·인구증가세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충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된다.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도시재생과, 박물관관리과 신설 및 7개 '계'를 증 가한다.

과 증가는 없으며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의 완료가 예상됨에 따라 공영사업과와 개관 후 13년이 지나 관광수요 및 기능이 안정된 철새생태관리과를 폐지·축소 이관해 2개 과를 신설하는 안이다.

시는 도시재생과 신설로 원도심 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원도심뿐 아니라 수송동 택지개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원도심이나 된 도시지역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이 검토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원도심 관광객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근대역사박물관을 과로 승격해 신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다양한 변화와 시도를 통해 원도심 재건의 랜드마크로 활용하고자 하는 복안이다.

주요 신설계로는 ▲공보담당관 언론홍보계와 미디어홍보계 분리신설,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계와 수질보전계 분리신설,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계 분리신설, ▲관광진흥과 관광개발계와 해양관광계 통합, ▲체육진흥과 운영계와 관리계 분리신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계와 사회재난계 분리신설, ▲교통행정과 지능형교통계와 통합관리계 분리신설, ▲수송동과 나운2동의 맞춤형복지계 신설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개선 발전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익산시는 15일 오후 시청 홍보관에서 2017년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의 발전방향 모색 및 우수하고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은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하여, 참여자가 다양한 업무경험과 능력을 쌓아 민간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3개 부서에서 14개 사업을 2016년 8월부터 4개월간 시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인원 및 기간 등을 더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뉴딜일자리의 사업개선과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인구 마지노선 30만명 지키기

인구정책계 신설·실거주 미전입자 전입운동 중심 인구증대 추진

익산시는 이리시와 익산시가 통합한 1995년 인구 33만 7천여명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2016년 10월 기준 인구 30만 966명으로 곧 인구 30만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인구 30만이 무너지면 정부의 국비 지원과 지방교부세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행정조직이 현재 5개국에서 4개국으로 1개국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정원감축에 의한 주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또한 국회의원 지역구 수도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축소가 불가피하며, 그동안 굳건히 지켜오던 호남 3대 도시로서의 위상 또한 흔들리게 된다.

익산시 인구는 지난 2년간 매월 평균 180여명(4.478명)의 인구가 감소하였지만 정현을 익산시장 취임 후 지난 6월부터 인구증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0개의 실행과제를 발굴 추진함에 따라 월평균 20명 감소로 그 감

소폭을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동안 익산시에서는 주민세 미부과 세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외주소자로 파악된 1.17세대에서 서한문 발송을 통해 전입을 독려하였고, 각 부서별로 연관된 기관, 단체 등에 실거주 중심의 전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또한 우리시에 거주하며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귀농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농촌·귀촌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우리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익산시 전입을 위하여 익산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제정중이며, 다자녀 가정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7년부터는 익산시 거주 가정의 셋째 이상 신생아에

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 및 조례를 개정 준비중이다.

또한 익산시는 인구증대를 위하여 직원과 통·리장과의 1대 1매칭을 통한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운동을 추진 한다.

직원과 통·리장 2명이 1개조를 이뤄 총 1.120개의 조로 구성되어 1개월 동안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운동을 해당 지역에서 직접 발로 뛰며 전입홍보를 하게 된다.

익산시는 이번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계를 신설하여 익산시 인구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인구 정책 지원 및 시민운동 등을 전개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구정책계 신설이 되면 익산시는 인구감소 문제를 장·단기적으로 계획하여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성산면 마동경로당 개소

군산시 성산면 마동경로당(회장 김순희)이 개소, 15일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 기관장 및 마을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마동경로당은 1억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300㎡ 부지에 방 거실, 화장실, 다목적실 등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80㎡ 규모의 건축물로 조성됐다.

김순희 회장은 "경로당 개소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경로당이 마을을 운영하는 구심점이 되어 마을주민 모두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순규 시장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경로당이 완공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모여 정을 나누며 지낼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

군산시가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한다.

체납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징수과는 지난 14일 세외수입 체납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원원 군산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징수보고회를 가졌다.

현재 군산시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 196억 원이다.

이 가운데 건축경관과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교통행정과의 주·정차과태료, 차량등록사업소의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과태료는 시세외수입 주요 체납과목으로 3개부서의 체납액은 시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75%인 148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주요 체납사유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과태료 등 부과 부서의 전담 인력 부족 문제 및 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시 재원확보를 위한 징수를 제고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됐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어린이 영농체험학습 '호응'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원예체험관과 작물재배 시범포, 농기계 임대사업장 등 주요시설을 어린이들에게 농촌체험학습 공간으로 개방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내 농심테마파크에서 진행된 '어린이 행복증진 영농체험학습'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농촌사랑의 마음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어린이집 20개소에서 640여명이 참여했다.

영농체험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공기정화식물 화분심기, 딸기·토마토 등 시설 하우스 작물 관찰, 농기계 시승 원예체험장 견학 등 자연학습과 놀이가 어우러진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식재한 채소 모종을 어린이들에게 나눠줘 채소를 직접 키우며 새싹부터 수확까지 자라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 영농체험을 통해 다양한 식물을 접하고 식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며 "아이들의 정서발달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며 농촌과 우리 농산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농촌현장학습의 장으로 연중 개방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수송동·나운2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군산시 수송동과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가 맞춤형복지 전용차량을 이용해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상담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맞춤형복지 차량은 복지허브화 선도 지역인 전국 33개 읍면동에 지원됐

으며, 시는 수송동과 나운2동에 차량을 전달해 복지인력이 기동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은 주민과 최접점에서 만나는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해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내방민원 상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

비스를 제공해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최상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호원대 건축학과, 호원건축대전 개최

호원대학교(총장 김희성) 건축학과(학과장 이민희)가 18일까지 사흘간 본교 공학관 4층 건축학과 갤러리에서 '제29회 호원건축대전'을 개최한다.

'호원건축대전'은 매년 2학기 종강을 앞두고 건축학과 재학생들이 건축 설계 과정을 관별과 모형으로 만들어 전시 및 설명하는 자리로, 이 기간 동안 동문 및 관계자를 초청하여 학부모 간담회 및 선배와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3일간의 건축대전 기간에는 학생들의 작품 전시 외에도 전문가의 특강과 건축 관련 영화 상영 등 건축과 친숙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특히 이광태 군산시 건축과장이 '시대를 통한 건축 행정'에 관한 특강을 마련해 생활 속 도움이 되는 건축 상식에 대해 전한다.

이밖에도 건축학과 동문 중 '올해의 자랑스러운 호원 건축인'을 선정해 감사패를 증정식을 진행하고, 현지 교수 및 총동문회와 총동문회 장학회에서 3명의 장학생



을 선정하여 장학금 전달식도 이뤄진다.

김희성 총장은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신선하고 수준 높은 작품들이 상당하고 들어 매우 기쁘고 건축대전을 준비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워킹패밀리 데이' 행사 개최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익산시 직영)는 일과 가정이 모두 행복한 기업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워킹패밀리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워킹패밀리 데이' 행사는 하림, 전북엔비텍, 신흥여객, 신령산업, 익산시청, 하늘어린이집, 행복한 사과나무 어린이집 등 총 8개 기업체에 근무하는 가정 총 191명이 참여한 가운데 숲 체험 부모교육 및 다양한 만들기 프로그램 등 자연체험을 통하여 자녀와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이가 행복한 육아가 즐거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업체를 대

상으로 이번 워킹패밀리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참가 가정들은 센터 주변의 공원을 탐방하며,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자연의 변화, 곤충의 생태 등을 탐사하는 숲 체험 부모교육과 자연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만들기 체험을 통해 아이들과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아이가 행복한, 육아가 즐거운 여성가족친화도시인 익산시에 재직하는 기업체 직원이라면 일과 가정 모두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 주민불편 예방 위한 4분기 현장감사 실시

익산시는 15일부터 23일까지 7일 동안 건설(건축토목) 공사장 10개소, 도로 굴착 5개소, 공장신축 3개소 등 총 18개 현장을 대상으로 주민불편예방을 위한 4분기 현장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담당관 기술감사계 3명이 현장을 찾아 공사장 안전과 품질관리 실태와 공사로 인한 각종 시민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특정감사를 추진한다.

이번 현장감사는 2억이상 30억 미만 건설공사장과 도로굴착, 공단의 지역의 연면적 1000㎡이상 공장신축 등을 대상으로, 공사 현장 안전대책 적정성

행, 소음·미진먼지 등 주민불편사항 발생, 도로 복구지역 침하 등으로 인한 통행불편, 교통통제 요원 미 배치로 인한 교통 혼잡 유발, 공장 신축에 따른 집단 민원 발생 예방조치, 기타 공사 시행 관련 민원발생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한다.

시는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공사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그 외 부실시공과 예산낭비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기자



원광대병원, QI 경진대회

원광대학교병원이 지난 14일 의뢰관 4층 대강당에서 주요 임원진 및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Q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QI 경진대회는 환자안전관리, 고객 만족 향상 진료 및 간호과정과 행정을 망라 해 업무 개선 활동을 통한 의료 질 관리의 우수 사례 발표 경연이었다.

원광대병원은 적정의료관리실 주관으로 지난 1년간 부서별 QI 활동 미션

들을 심사숙고 선정하여 이날 구연 발표에 의료정보팀을 비롯한 7개팀에 방사업팀의 8개 팀이 포스터 발표자로 탐방방울의 결과물을 선보였다.

열린 경쟁 끝에 이번 제16회 QI 경진대회에서는 의료정보팀(EMR 서식전산화)을 통한 서식 삭제 발생률 감소 방안이 대상을 관제팀(고정자산 실사 방법 개선)을 통한 자산 평가의 신뢰도 향상)이 금상을 62병동(표준화 된 정맥주사 관리에 따른 정맥염 감소 활동)이 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익산=장양원기자